

LG전자·디스플레이, 글로벌GM '혁신상' 수상

디지털 콕핏 시스템 혁신성 인정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GM 으로부터 혁신 공로를 인정받았다.

LG전자와 디스플레이 양사는 최근 GM 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올해의 공급업체 시상식'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GM은 2016년부터 매년 차량 성능과 소비자경험 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혁신상을 시상해왔다. 올해에는 5개 회사만이 혁신상에 포함됐다.

LG전자는 캐딜락 2021년형 에스컬레이드에 공급한 디지털 콕핏 시스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운전석을 감싸는 완만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올해 GM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

곡선의 디자인으로 시인성과 인테리어까지 제공한데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LG전자의 인간공학적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탑승객들에게 차별화된 사용자경험을 제공한다.

LG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초고해상도 플라스틱 올레드 디스플레이 제작을 맡았다. 계기반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38인치 크기 화면 하나로 구현해냈다.

LG디스플레이 Auto사업담당신정식 전무는 "글로벌 고객으로부터 초대형 차량용 P-OLED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인정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P-OLED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김진용 부사장은 "고객 관점에서 고민하며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일류 공급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토종 보톡스 신화의 몰락



기지 수첩

이 세 경 <유통&라이프부>

토종 보톡스 신화가 허무하게 무너졌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미국 앨러간의 원조 '보톡스'가 주름잡던 국내 시장에 해상처럼 등장한 첫 국산 보톡스였다. 가격은 30% 저렴했지만 효과는 좋았던 토종 보톡스는 단숨에 원조를 누르고 국내 시장 1위로 올라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를 점했다.

이런 메디톡신이 14년 만에 퇴출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메디톡스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제와보니, 모든 것은 '원조' 논쟁 때문이었다. 메디톡스 퇴출의 원인이 된 검찰 조사는, 대응계약으로 이직한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 신고로 시작됐다. 지난해, 메디톡스와 대응계약이 균주의 '원조'를 둘러싼 전쟁을 한창 벌이던 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싸움을 먼저 건 쪽

은 메디톡스였다. 지난 2016년, 대응계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응계약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에는 앨러간과 함께 대응계약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 소송의 결과는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쟁사 진출을 막겠다고 앨러간과 손을 잡은건, 결과를 떠나 비난받을 행위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과 불법행위 논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후발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본 기간의 제품은 이미 모두 팔리고 없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도 메디톡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허가 취소를 결정했던 것 한 처사"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한때 '신화'였던 1등 주자의 퇴장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씁쓸하다. /seilee@

이화의료원 이선희 교수, 의사평론가 선정

의료정책 논평·제언... 국민건강 발전 기여

이선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사진)가 지난 29일 열린 '제43회 의·약사평론가' 시상식에서 2020년도의 사평론가로 선정됐다.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이선희 교수는 의료계의 전문가로서 뛰어난 소통역량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어 소통하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전문가적 식견과 비평 역량으로 의료 정책을 논평하



자문에 참여해왔고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등 관련

고 제언함으로써,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 교수는 복지부,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된 공직을 맡아 정책실무를 겸비하였다. 또한 의료경영 분야에서도 꾸준히 연구하여 환자행동과 소비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 마케팅과 의료경영 실증연구들을 발표하였고 여성 최초로 한국병원경영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의·약사평론가상'은 매년 각계의 추천을 받아 건전한 의약문화 조성에 앞장선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그동안 배출된 200여 명의 의·약사평론가들은 의약계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98년부터는 한국 의약사평론가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5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48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 60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2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84년생 목표를 수정할 때.	말 42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나 새로운 일에 도전. 54년생 심신이 고단하니 재물은 들어온다. 66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라. 78년생 걸 때 내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쉬었다 가자. 90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목표에 도달.
소 37년생 망가의 강을 건넌 듯 기억력이 떨어진다. 49년생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는다. 61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73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85년생 후배와 갈등이 생기니 주의.	양 43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의 화목. 55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67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79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91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본다.
호랑이 38년생 흉탄물은 잠시 두면 맑아진다. 50년생 좋은 일이라도 금방 달려들지 마라. 62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74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86년생 오늘 준비해와 내일이 기다려진다.	원숭이 44년생 하상을 그러니 되는 일이 없다. 56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68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 80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92년생 동료와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토끼 39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겁다. 63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다. 75년생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87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닭 45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57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9년생 두드러면 열릴 문이니 있는 힘껏 두드려야 한다. 81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다. 93년생 익숙한 일도 가벼이 보지 마라.
뱀 40년생 나이 들어도 친구는 소중하니 지갑을 열자. 52년생 좋은 정보로 경제적 이득을 본다. 64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76년생 허리를 뿌러서 열 개를 수확하는 날. 88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은 당분간 보류.	개 46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 5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로는 고맙기도 하다. 70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결단이 필요. 82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척이 근심을 가져온다. 94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마음 편하다.
돼지 41년생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자. 53년생 자식에게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65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77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 오는 격. 89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진출해보자.	돼지 47년생 우물에서 비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59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71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 83년생 병이 오나 약도 주어진다. 95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김상희의四季 변덕이 심한 사주

요가학원을 개원하려 준비중인대표가 여직원을 채용하려 상담왔다. 예전에 자신으로부터 요가를 배웠던 강습생이었는데 나이는 두 살 정도 위지만 성격도 명랑해보이고 적극적으로 보여 수강생들 관리에 적격일 것 같아 직원으로 같이 일하자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겠노라 했다.

개강 전부터 비품 구입이며 내부 인테리어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고 맨 처음 일, 이주일은 관찮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매사에 참견도 심하고 자기주장이 강해 원장인 자신을 오히려 조종하려 들고 특히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에 지출이 많았다.

정 안 맞을 것 같으면 이제라도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같이 못하겠다는 얘기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찾아왔다. 내어 놓은 생년월일을 보니 예비 직원은 봄 계절에 태어난 계수일간 일주로서 효신격이었다. 그런데 인성이 시지에도 있으니 인성이 혼잡하며 변덕이 있다. 신강한데 관살이 함께 있으면 인격이 있다느니 품위가 있다느니 하며 선을 긋고 천살이 있는 인성혼잡이니 변덕이 심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좋을 때 좋다가도 그다음 날 언제 그랬더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무엇보다 변덕이 심한 이 친구는 자기 착각도 심해 수강생들과 요가원장 사이에 불미스런 오해도 많이 생기게 할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찌 통보를 해야 할 지 몹시 난감해 하긴 했으나 어찌겠는가. 마음 상하지 않게 수고함을 전달하고 다른 파트너를 채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나은 것이라 얘기했다.

그랬더니 돈을 좀 지출하더라도 그게 낫겠다며 일어섰다. 마음고생뿐 아니라 규모가 크던 작던 사람채용은 가장 어려운 과제라 본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9	7		4	8			3
		5		7			9
2			9				
3				2		7	5
	9				6		
4	1		3				2
			5				7
	3		1		8		
6			8	9		2	4

		9	A	B	2	6	
8	3		2		5		4
A				7	1		
	3	5		4	8		9
		2	1	A	B	5	4
	1	7		B	6		C
		1		7	2		4
7	A	4		9	8		5
		C	6		3	5	B
			8	2			7
	B		C		A		2
		9	1	4	3	A	

7	2	6	8	1	5	9
6	5	8	9	7	2	4
2	9	1	5	2	7	6
8	6	5	9	2	1	7
1	2	9	7	8	6	5
5	7	2	1	6	8	9
9	7	1	6	5	8	2
8	6	2	1	9	5	7
2	1	5	8	7	9	6

8	3	9	2	7	1	6	5
9	7	2	6	1	3	8	5
2	6	1	5	9	8	7	4
6	1	8	2	5	9	7	3
2	5	8	1	6	9	7	4
7	8	9	2	1	3	5	6
5	8	2	7	4	6	9	1
1	9	6	5	3	2	8	7
8	2	9	7	4	6	5	1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1호